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6.08)

1. 문제점

□ 축산농가 출아와 도축장 간 예약출하시스템 부재

- 현재 산지 축산농가와 가락시장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장(이하 공판장) 사이에 계획적인 예약출하시스템이 없음.
 - 명절 등 성수기에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여 가락시장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소 가격이 상승하고 산지 축산농가의 가축출하 급증
- 축산농가는 명절이나 가격상승 시 공판장으로 출하를 집중하나 공판장 도축처리능력의 한계로 경매 및 도축이 지연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

□ 도축장 밖 장시간 대기로 근출혈 또는 심지어 쓰러지는 소 발생

- 가락시장 공판장에서 처리가능한 두수 이상으로 소가 출하될 경우, 소를 운반트럭에 실은 채 사료나 물 공급 없이 도축장 밖에서 최소 2~3일 최대 1주일이상(명절 때) 대기하는 경우 발생
 - * 가락시장 도축장의 소 도축능력은 하루 480마리 정도인데, 설이나 추석 등 성수기엔 도축 능력보다 무려 2~3배씩 많은 물량이 몰림.
- 도축전 장시간 대기는 근출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가격손실 발생(두당 100~150만원 손실). 심한 경우 대기중이던 소가 쓰러지는 경우까지 발생
 - 가락시장 도축장의 2008. 1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경매가격 기준 정상도체와 근출혈 도체 가격 비교

- * 1++등급 정상우의 경우: kg당 1만8천588원, 근출혈 도체는 1만6천983원으로 그 차가 kg당 무려 1천6백5원. 이를 마리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출하된 한우 거세우의 도체 평균 생체중 6백69kg, 도체중 4백5kg임을 감안할 때 정상우 1++등급은 7백52만원, 근출혈우는 6백87만원으로 마리당 64만원의 가격차 발생. 1+등급 정상우와 비교하면 56만원, 1등급 정상우와는 49만원의 가격 차이 존재
- * 피해사례: 2008년 추석 때 1주일 대기로 소가 쓰러져 800만원 소가 300만원으로 가격 폭락(현장토론회 참여 농가)

< 근출혈 >

- 소의 모세혈관이 파열돼 근육에 암적색 혈흔이 나타나는 현상
- 발생 원인: 소 사육과정·운송과정·도축전 대기 과정에서 소에 가해진 스트레스, 유전적 요인, 소 사육환경 등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음.
- 일단 근출혈이 생긴 소는 시각적으로 외관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근육 속에 혈액이 잔류하여 저장성도 떨어지는 등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

- 도축 지연으로 인한 소 품질 하락의 책임소재가 농가, 운송기사, 도축장 사이에 불분명
 - 이에 따라 현재 도축 전 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가 모든 손실을 떠안고 있는 실정임.
 - 그러나 농가들은 근출혈이 대부분 운송과 도축 전 대기 또는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

2 해결방안

출하예약제 등 계획적인 출하시스템 도입

- 단기적 측면에서, 성수기 홍수출하에 따른 도축 전 대기시간 증가, 근출혈 발생 빈도 증가, 가격 하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하예약

제 등 계획적인 출하시스템 도입

- 출하예약제는 가락시장 공판장에서 각 지역 농·축협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정해진 시간에 도축물량을 공급받아 상장경매에 나서는 제도임.
 - * 2008. 1월 가락시장 공판장은 시범적으로 출하예약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해관계로 인해 연기됨.
 - * 한우 운송업자들은 대기 시간도 운송료를 받을 수 있어 출하예약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

□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

- 근출혈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상태에서, 소의 소유권이 농가에 있다 해서 모든 피해를 농가에게 안기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존재
 - * 일본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근출혈에 따른 피해 보상 실시(가락시장 공판장 경매실장, 농민신문 2006.10.19일 기사)

□ 근출혈 등 리스크관리 보험상품 개발 운영 필요

- 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 수취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근출혈 등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가격보험상품 개발 필요